

<2022학년도 전임교원 공개초빙 공고용>

지원자를 위한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학과	생명과학과	초빙분야 (한글 및 영문)	신경생물학 (Neuroscience)
	교육	연구	산학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

- 본 학과는 아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1)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2)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 수월성을 발휘하여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바이오헬스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수월성을 가진 생명과학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본교는 연구 중심 병원으로 우뚝 서 있는 대학병원이 같은 캠퍼스 내에 위치하며, 약학대학 또한 같은 캠퍼스에 존재하여 바이오 분야에 좋은 연구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본 학과에서는 교육 및 연구에 3가지 모듈을 설정하여 교수님들이 협력하여 학과 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포메틱스 - 의과학 - 에코 분야에서의 전문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인포매매틱스 빅데이터 분야로 많은 바이오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빅데이터를 가공, 분석하는 생물정보학 전공자를 기 보유하고 있고 추후 추가적인 전산생물학 전공자를 초빙할 예정이고, 대학 병원의 의료 빅데이터의 이용도 가능하여 앞으로 매우 경쟁력이 높은 연구 분야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바이오의료 분야로 이 분야에는 기존의 생리학, 면역학, 발생학, 분자생물학, 암생물학, 글라이콤생화학 전공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의료 사업에 접목시켜 바이오신약의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는 환경 분야로 이 분야에서는 분류학, 생태학, 미생물학 등과 식물생리학/식물분자생물학 분야를 접목시켜 생태보존과 환경 정화, GMO 작물 개량등의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연구 인프라와 협력연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오셔서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하실 분을 모십니다.

■ 신임교원 활용방안(기대 사항 등)

- 이미 개설되어 있는 학부 과목(신경생리학)과 대학원에서의 전문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다.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 연구 분야에 neural connectomics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참여한다.
- 기초과학분야 과목인 생명과학이나 생물학, II 과목을 강의한다.
- 신규 임용 후 전임 교원이 사용하던 기존의 연구 시설과 연구 장비를 이용하여 바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 인턴 학생이나 예비 대학원생에게 실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재임용 때까지 책임시수 감면이 있고, 각종 행정 업무에서 혜택을 받는다.
- 2021년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선정된 자율형 중점연구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착 초기 연구기반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향후 연구 경쟁력 있는 학교 교수들과 같이 BRL 지원 연구 그룹을 형성,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3-4년 후 BRL 과제신청에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